

보물지도의 진짜 보물은 숨겨진 애국심

도서명 : 반진고리의 비밀

임채원

얼마 전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반진고리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다. 마침 학교 실과시간에 반진고리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 책의 주인공 강산이든 마을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문화재를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할머니의 반진고리에서 보물 지도를 발견한다. 치매에 걸린 강산이 할아버지가 그 지도를 알아보셨다.

그날 이후 계속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반복하셨던 할아버지는 그 지도가 문화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강산이는 보물 지도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실수로 일본인 순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집에 문화재가 있다고 알려줘 버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혼자 지내던 중 독립운동가인 삼촌이 할아버지를 아는 일본인 아줌마에게 맡겨 놓고 독립운동을 위해 히로시마로 떠난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삼촌은 죽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가던 길에 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계속 돌봐주었다고 한다. 그러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야 할아버지는 드디어 고향, 솟골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며 생각해 보았다.

‘할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나는 반진고리에서 보물 지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보고 값비싼 항아리를 생각하며 강산이랑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꼭 항아리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를 생각한 것 같다. 강산이가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은 것은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잊힌 나라의 소중함 즉, 애국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보물을 찾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애국심을 찾은 그것으로 생각한다.

‘보물 지도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흔히 보물 지도라고 하면 값비싼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과 신나는 모험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물 지도는 할아버지의 슬픈 기억을 되짚는 과정이었다. 강산이 할아버지는 원래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에게조차 왜 자신이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재를 되찾겠다는 말만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물 지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보물 지도는 할아버지가 슬픈 기억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자신의 기억을 점차 찾아가는 치매치료제와 같은 것이다.

‘보물 지도가 왜 하필 반진고리에 있었을까?’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신의 말실수로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하지만 슬프고도 괴롭고도 그리울 것이다. 그런데 반진고리는 보통 어머니가 쓰는 물건이다. 나도 반진고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한다. 이처럼 책에서 나타낸 반진고리는 어렸던 소년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되어 서도 엄마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반진고리의 비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앞두고 내 마음속 어딘가 숨겨져 있던 애국심을 찾게 해준 보물 지도와 같은 책이었다.